

# 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[seogil.chang@kotra.or.kr](mailto:seogil.chang@kotra.or.kr))

2023.08.04.(금) 제23-087호

- ◆ [Focus] 美 하원특위, 중국 투자 촉진 의혹에 블랙록·MSCI 조사 통지
- ◆ [What's News]
  - (태양광) 글로벌 태양광 산업, 위구르 강제노동 노출도 심각
  - (규제) 상무부, 티타늄 스폰지 공급망 관련 정책 제안 보고서 제출
  - (투자규제)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, 백악관에 해외투자 심사 강화 서한 전달
  - (미중무역) 미 무역대표부, 중국산 수입차 대응 조치 고려 중
  - (고용지표) 美 노동 통계청, 7월 18만 7천 개 일자리 증가 발표
  - (미중관계) 美 블링컨 국무장관, 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'기대 중'
- 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## FOCUS

### (대중규제) 美 하원특위, 중국 투자 촉진 의혹에 블랙록·MSCI 조사 통지

#### 1. 개요

##### □ 조사 개요

- 美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금융지수 개발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(MSCI)에 서한을 발송해 조사 방침을 통지(7.31)
  - 미중 전략경쟁특위 마이클 갤러거(Mike Gallagher) 위원장은 기업들에 보낸 서한에서 “미국 기업이 중국의 군사 발전을 촉진하고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투자로 이익을 얻는 것은 부도덕한일이다” 지적
  - 서한은 두 기업의 활동이 미국 안보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중국 기업 60여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, 8월 중순까지 추가 정보를 요청
  - 최근 미국 의회의 대중국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금융·투자 업계 규제로도 이어질지 주목

## 2. 상 세

### □ 하원 전략경쟁특위 질의 주요 내용 및 반응

- 위원회는 두 기업의 활동에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로 올린 중국 기업 다수가 관계되어 있다며 투자 결정 시 고려 요소 등 추가 정보 요청
  - 서한에 따르면 블랙록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20개 이상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연루되어 있으며,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중국 기업들\*에 5개 펀드 4억 2,9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지적
- \* 중국 통신업체 ZTE, 방산업체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(AVIC), 조선업체 CSSC 등 포함
- 또한 MSCI 지수 內,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로 올린 4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, 이는 중국 본토 기업(상하이 또는 선전 증권거래소)을 대상으로 하는 MSCI 중국 A 지수 가치의 5%에 해당(3월 기준)한다고 지적
- 위원회는 기업의 중국 관련된 투자 결정 시 고려 요소, 특정 기업의 지수(index) 편입 시 고려 사항, 이해상충에 관한 정책 및 절차, 중국 기업 또는 국가 안보 및 인권 침해 요소 고려 여부 등 상세 설명 요구

#### <하원 특위의 블랙록 대상 주요 질의 및 정보 요청사항>

- 블랙록 지수 중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이 포함된 지수 목록
- CHILX 및 기타 펀드에 기업 포함 시 고려하는 요소
- ETF 제공 시 고려하는 요소
- 중국 기반 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 계약 시, 블랙록이 준용한 정책과 절차 및 관련 지침 문서
- 펀드에 포함된 중국 기업에 대한 실사 수행 가능 여부와 방법
- 위험기업 관련 대중 및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명성 정도

[자료: 하원 보도자료]

- 서한을 수신한 두 기업은 성명을 통해 적극 협조 의사 표명
  - 블랙록은 “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투자 시 미국 정부의 모든 법률을 준수한다”며 “위원회와 계속 협력할 것” 의사 표명
  - MSCI는 “우리는 어떤 국가에서도 투자를 촉진하지는 않는다”고 응답, “위원회에서 요청한 조사에 대해 확인 중” 이라고 답변

### 3. 현지 반응 및 전망

#### □ 현지 반응 및 전망

- 최근 대중국 규제 강화 흐름 속 금융·투자 업계로까지 확대 여부에 주목
  - WSJ은 지난 7월 위원회의 중국 AI, 반도체, 양자컴퓨팅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 조사를 언급하고 이어진 이번의 투자 조사 움직임에 주목
  - 로이터는 이번 조사가 블랙록과 MSCI에만 집중된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슷한 지수를 트래킹하는 펀드로 확대 가능성 지적
  - \* 프랭클린템플턴(Franklin Templeton), 반에크(VanEck), 위즈덤트리(WisdomTree) 등 다른 자산운용사에서도 중국 자산과 펀드를 보유하고 있음.
  -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“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경제, 무역, 투자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에 위배 된다” 반발
- 美 하원 전략경쟁특위는 입법 권한은 없으나 조사 과정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인사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 보유
  - 아직 위원회에서 실제 관련 인사를 소환한 적은 없으나 마이클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 4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발언
  - 이후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하원 및 관련 상임위에 정책 권고를 제출할 수 있음.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

▪ 자료원 | 하원 보도자료(8.1), 월스트리트저널(8.1), FT(8.1), 로이터(8.1), 블룸버그(8.1) 등

## □ (태양광) 글로벌 태양광 산업, 위구르 강제노동 노출도 심각

- (개요) Sheffield Hallam 대학, 글로벌 태양광 업계의 신장·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 노출(exposure) 분석 보고서 발간(8.1)
    -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정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, 대다수 기업의 불투명한 공급망 관행이 강제노동 노출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
  - (상세) 2차·3차 협력사를 통한 위구르 강제노동 노출 심화 우려
    - '22년 기준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의 98%가 중국에서 발생, 이 중 39% 이상이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
    - 보고서에서 위구르 강제노동 노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 기업 9개 명단 중에 국내 기업 한화 큐셀도 포함되어 언론 주목
  - (비고) 동 대학은 작년 말에도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위구르 강제노동 노출 문제를 제기한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으며,
    - 이에 미국 상원 금융위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 8개 사\*의 공급망에서 위구르 강제노동 연계 여부 조사에 착수 ('22.12.22)
- \* 포드, GM, 혼다, 메르세데스-벤츠, 스텔란티스, 테슬라, 토요타, 폭스바겐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▪ 자료원	Sheffield Hallam 대학(8.1), 뉴욕타임즈(8.1), 상원 금융위(22.12.22)

## □ (규제) 상무부, 티타늄 스폰지 공급망 관련 정책 제안 보고서 제출

- (개요) 티타늄 스폰지 워킹그룹\*은 보고서에서 항공우주 산업에 핵심 부품인 티타늄 공급 원활화를 위한 정책 제안 (관보 게재일 8.3)
- \*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티타늄 스폰지 232조 조사 결과 '20.2월 티타늄 수입 급증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상무부 산하 워킹그룹 신설

○ (상세) 티타늄 관련 관세 스케줄에 전략적인 변경 요구

- 티타늄 스펀지 관세를 변경에 필요한 규제 및 법적 단계 모색 촉구.  
對 중국·러시아 관세는 올리고 여타국에 대한 관세는 낮추는 안 요구
- 새로운 232조 국가 안보 조사 착수를 권고하며, 이로써 미국 내 고부가가치 티타늄 관련 제품 생산 활성화에 기여 가능 주장
- 그 밖에도 △국가 전략 비축 물자 명단에 티타늄 제품 추가 △티타늄 금속 및 항공 우주 산업 혁신 기술 개발 지원 △일본 등 티타늄 생산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등을 권고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▪ 자료원	미국 관보(8.3), 인사이드트레이드(8.3)

□ (투자규제)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 백악관에 해외투자 심사 강화 서한 전달

- (개요)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외투자 심사 행정명령을 강화할 것을 촉구(8.3)
  - 백악관은 8월 중 발표할 해외투자 심사 관련 행정명령을 준비 중
- (상세) 효율성 제고를 위해, 행정명령 내에 대중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미 기업의 중국 기업 주식 거래 제한도 반영할 필요성 주장
  - 국가 안보 우려와 밀접한 중국 주식·채권 보유, 중국 기업이 포함된 투자 펀드 거래를 포함한 공개 시장 투자도 감시할 것을 요구
  - 폴리티코는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의 주장이 현재까지 해외투자 심사와 관련해 가장 강경한 의견이며,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도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▪ 자료원	의원실 보도자료(8.3), 파이낸셜타임스(8.3), 폴리티코(8.4)

## □ (미중무역) 미 무역대표부, 중국산 수입차 대응 조치 고려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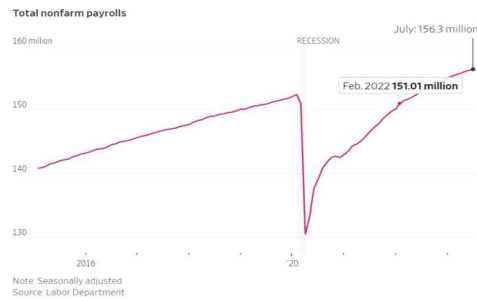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브라이언 야노비츠 USTR 중국 무역 집행부 수석 고문은 WITA 행사에서 중국산 수입차에 대한 미국의 우려 고조를 언급(8.3)
  - 중국이 올해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함에 따라,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전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 제기
- (상세) 야노비츠 수석 고문, 중국 자동차에 부과된 27.5% 관세 유지 가능성에 무게 \* 기본 관세율: 2.5%, 301조 관세율: 25%
  - 현재의 낮은 시장 점유율은 높은 관세율 덕분이라 주장했고, 향후 중국 국유 기업의 비시장 행위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등장할 가능성 언급
  - 또한, 올해 가을까지 진행될 USTR의 301조 관세 검토에서 중국의 전기차, 전기차 배터리, 핵심 광물 등을 고려할 것으로 언급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▪ 자료원	폴리티코(8.4), 인사이드트레이드(8.4)

## □ (고용지표) 美 노동 통계청, 7월 18만 7천 개 일자리 증가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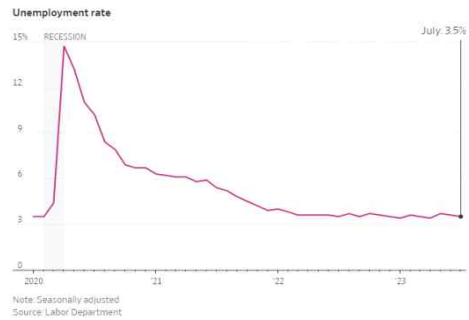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미 노동부는 7월, 187,000개의 일자리 증가 및 3.5% 실업률\* 발표
  - \* 지난 6월 3.6%에서 하락한 수치이며, 50년 만에 최저치 기록
- (상세) 전반적인 둔화에도 불구하고, 다수 언론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
  - 임시 지원 서비스, 기술·정보 회사, 소매업체 분야 일자리는 감소했지만, 의료 서비스 분야는 증가
    - \* 연준은 긴축정책으로 일자리 증가가 일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(7.26)
  - 7월 평균 시간당 수입은 전월 대비 0.4%, 전년 대비 4.4% 인상을 기록
    - \* 전년 대비 인상률보다 낮지만,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

<미국 비농업 급여지수 지표>



[자료: 미국 노동부, WSJ 인용]

<미국 실업률 지표>



[자료: 미국 노동부, WSJ 인용]

-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                |
| ■ 자료원 | 월스트리트저널(8.4), 미국 노동통계국(8.4) |

□ **(미중관계) 美 블링컨 국무장관, 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'기대 중'**

- (개요) 블링컨, 기자회견에서 왕이와 가을경 만날 것을 기대한다 밝혀(8.3)
  - 앞서 미 국무부는 친강 전임 외교부장에 대한 초청을 신임 왕이 부장에게도 공식적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(8.1)
    - \*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에서 친강과 회견 후 워싱턴으로 공식 초청(6.18)
- (반응) 미 국무부와 대비되는 중 외교부의 '공식 의견 없음'
  -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방미 일정 조율 등은 아직 없었으나 중국이 초청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,
  - 中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워싱턴의 초청 관련 내용이 없음
    - \* 이에 [워싱턴익새미너는 사실](#)을 통해 초청 거부 가능성을 제기
  - 한 편, 지나 레이몬드 美 상무장관은 8월 21일 경 방중 예정

- |       |  |
|-------|--|
| 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  |
| ■ 자료원 |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(8.4), 로이터(8.1), 中 외교부(8.2), 블룸버그(7.31) |

## 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<a href="#">A Goldilocks Job Market Is in Sight</a> (눈 앞으로 다가온 고용시장의 ‘골디락스’)</p> <p>미 노동부, 지난 7월 187,000개의 일자리 증가와 3.5% 실업률을 발표. 실업률은 하락했지만, 청년·여성 노동, 이민자 등 고려 시 고용시장 과열 완화를 시사</p>
The Washington Post	<p><a href="#">5 things Trump’s Jan. 6 indictment week tells us about the 2024 election</a> (이번 트럼프의 기소가 2024 대선에 대해 알려주는 것들)</p> <p>트럼프 전 대통령, ‘1월 6일’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기소 당함. 이번 기소가 대선 행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, 바이든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</p>
The New York Times	<p><a href="#">A Republican 2024 Climate Strategy: More Drilling, Less Clean Energy</a> (공화당의 2024 기후 전략: 화석연료 ↑ 청정에너지 ↓)</p> <p>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Project 2025 제안에는 현 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과 반대되는 제안이 많은 것으로. 공화당원 70%는 기후변화를 문제로 보지 않아</p>
CNN	<p><a href="#">US and Western officials fear Putin unlikely to change course in Ukraine before 2024 election</a> (푸틴 미 대선까지 복지부동 전망에... 서방진영 고심 중)</p> <p>서방,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 대선 변수를 상정하고 지연전략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망. 푸틴은 공화당 정부 수립시 우크라이나 정국에 반전이 있을 것을 기대.</p>

\* 미국 동부시간 8월 4일 16시 기준

## Notice

### 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\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23	<a href="#">해외투자 심사 관련 상원 법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7월
US23-22	<a href="#">희귀광물 갈륨·게르마늄 공급망 분석</a>	2023.07월
US23-21	<a href="#">IPEF 4차 협상 주요 내용 및 현지 기관 분석</a>	2023.07월
US23-20	<a href="#">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통계로 보는 변화</a>	2023.06월
US23-19	<a href="#">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스 의견서 주요내용</a>	2023.06월
US23-18	<a href="#">RE100,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</a>	2023.06월
US23-17	<a href="#">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6월
US23-16	<a href="#">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5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헤드림 심층보고서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<a href="#">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</a>	2023.01월
US22-기 획6	<a href="#">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5	<a href="#">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4	<a href="#">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</a>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☜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4 (2023.6.30)	 <p>전미자동차연구원(CAR) '앨런 아메리'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</p>	
코인시-13 (2023.6.26)	 <p>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'켄달 스투리버'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!</p>	